

2025년 새싹 해커톤(SeSAC Hackathon) AI 서비스 기획서

팀명	문래개발촌
팀 구성원 성명	고아영, 김승구, 이성현, 이슬, 진민국

1. AI 서비스 명칭

서로의 지혜를 마주 보는 곳 : 마주.ai

2. 활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데이터명	분야	출처
1	사용자 프로필 텍스트 데이터 (배울래요, 나눌게요)	라이프스타일, 디지털 활용, 경험, 교육 등	사용자 직접 생성

3. 핵심내용

마주.ai 는 상호 재능 교환을 중개하는 지능형 매칭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멘토'나 '멘티'가 없습니다. 오직 '**배우는 사람**' 과 '**나누는 사람**' 이 있을 뿐이며, 모든 사용자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가집니다.

- [배울래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

- [나눌게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마주.ai는 모든 사람의 프로필을 살펴보고, 서로에게 꼭 맞는 파트너를 자연스럽게 이어 줍니다.

우리는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 지혜를 나눕니다.

4.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배경]

모든 세대는 배움과 나눔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지식 전달 구조는 일방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서로가 가진 잠재적인 교류와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로 이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 누구나 **서로에게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니어 세대

엄청난 삶의 지혜(육아, 요리, 전문 기술, 인생 상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경험을 나눌 현대적인 창구가 부재합니다. 이들의 가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에 갇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로 IT 기술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경쟁 사회 속에서 정서적 고립과 삶의 노하우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과의 연결은 청년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AI 기반 매칭 시스템 **마주.ai**를 통해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지능적으로 연결합니다. 기존의 교육자-학생이라는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등한 “Giv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 상호 성장과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목적]

세대 격차의 재정의

세대 격차를 '단절'이 아닌 '상호 보완'의 기회로 재정의합니다.

숨겨진 가치의 발굴

모든 세대가 가진 숨겨진 가치(재능, 경험)를 AI로 발견하고 연결합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동등한 교환’의 문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세대 통합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만듭니다.

5. 세부내용

[활용 데이터 및 AI 모델]

구분	요소	역할
활용데이터	사용자 생성 프로필 데이터	[배울래요]의 프로필 텍스트 [나눌게요]의 프로필 텍스트
AI모델	text-embedding-3-small(OpenAI)	텍스트의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여 숫자 배열(Vector)로 변환(Embedding)합니다.
DB/검색	Supabase (PostgreSQL + pgvector)	OpenAI가 만든 Vector를 저장하고, 의미상 가까운 다른 Vector를 검색(유사도 검색)합니다.

[서비스 아이디어 개요]

#프로필 저장 단계

1. 사용자가 [배울래요] / [나눌게요] 텍스트 입력 후 저장.
2. 서버는 이 텍스트를 OpenAI API로 보내 learn_vector와 share_vector를 각각 획득.
이 벡터들을 Supabase DB의 user_profiles 테이블에 원본 텍스트와 함께 저장.

#매칭 실행 단계

1. 사용자 'A'가 매칭 요청.
2. 서버가 Supabase DB의 RPC(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호출.
3. RPC 함수는 DB 내부에서 '상호 교환 점수'를 계산 (아래 '적용기술' 참조)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최적의 '상호 파트너' 목록을 사용자 'A'에게 반환.

[적용기술]

의미 벡터 변환 (Embedding)

적용 모델: OpenAI text-embedding-3-small

역할 및 기능: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배울래요] 및 [나눌게요] 항목에 입력한 텍스트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합니다.

text-embedding-3-small 모델은 입력된 한국어 문장의 뉘앙스와 의도를 분석하여, 이를 수치화된 '의미 벡터(Vector)'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 (Supabase)

벡터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 및 고속 검색을 위해 Supabase를 사용합니다.

1. 일반 데이터 저장 : 사용자의 프로필, [배울래요]/[나눌게요] 원본 텍스트 등 정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2. 벡터 데이터 저장 및 검색 : Supabase pgvector를 통해 (코사인 유사도 알고리즘을 사용) 의미상 가장 유사한 벡터를 검색합니다.

[서비스 아이디어의 창의성]

세대 인식의 재해석

모든 사용자는 세대 구분 없이 [배울래요]와 [나눌게요] 프로필을 함께 보유합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하나의 가치로 새롭게 조명합니다.

AI 기반 의미 매칭

단순 키워드 매칭을 넘어섭니다.

AI 언어 모델(Embedding)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문맥과 의도를 분석하여 의미적으로 연결 가능한 관계를 찾아냅니다.

**[배울래요: “AI로 손주 그림 그려주기”]
[나눌게요: “나노바나나로 5분 만에 이미지 제작”]**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다른 문장이라도, AI는 두 문장이 ‘AI 기반 이미지 생성’이라는 같은 의미 영역에 있음을 이해하고 연결합니다.

[구현가능성]

검증된 기술 활용

직접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고, 검증된 상용 API(OpenAI)와 Supabase를 활용합니다. 이 방식은 모델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서비스 방법]

AI는 두 프로필([배울래요]·[나눌게요])을 의미 기반으로 분석해, 서로에게 필요한 재능을 교환할 수 있는 매칭을 생성합니다.

시연 시나리오

1. 시니어가 **[배울래요: 기술]** / **[나눌게요: 경험]**을 등록합니다.

시니어 A

배울래요: "손주와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나눌게요: "50년 노하우가 담긴, 절대 짜지 않은 깃잎 장아찌 비법을 나눌 수 있어요."

2. 청년이 **[배울래요: 경험]** / **[나눌게요: 기술]**을 등록합니다.

청년 B

배울래요: "깊은 맛이 나는 깃잎 장아찌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나눌게요: "AI 툴(미드저니, 캔바)을 활용한 감각적인 유튜브 썸네일 제작법을 나눌 수 있어요."

3. AI가 이 '양방향 교차 매칭'을 정확히 찾아내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년B의 [배울래요: '맛있는 깻잎']과 시니어A의 [나눌게요: '50년 노하우 깻잎 장아찌'] 를 **문맥적으로 연결**합니다.

[시니어A] 배울래요: 유튜브 ↔ [청년B] 나눌게요: 유튜브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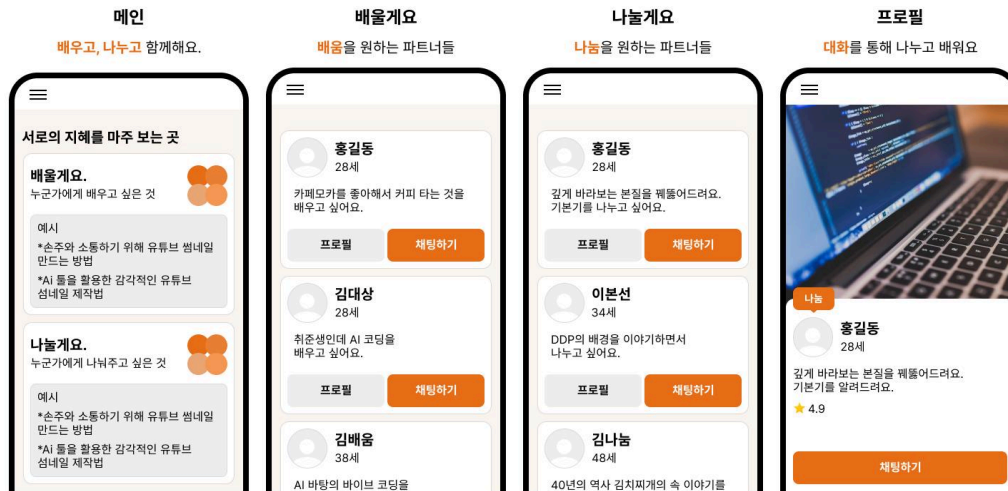
[시니어A] 나눌게요: 요리 비법 ↔ [청년B] 배울래요: 요리 비법

결론: AI가 시니어A와 청년B를 '상호 교환 파트너'로 매칭합니다.

구분	시니어 (A)	청년 (B)	AI의 매칭 로직 (상호 교환)
[배울래요]	"요즘 유행하는 AI로 그림 그려서 손주에게 선물하고 싶어."	"부동산 전세 계약, 사기 안 당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A의 니즈] (AI 아트) ↔ [B의 재능] (IT/AI 툴) [B의 니즈] (계약 법률) ↔ [A의 재능] (부동산 실전 경험)
[나눌게요]	"30년 부동산 중개 경험, '독소 조항' 귀신같이 찾아냄."	"미드저니, 캔바(Canva) 활용한 AI 이미지 생성 전문가."	AI가 두 사람을 '최적의 상호 파트너'로 연결!
[배울래요]	"반려식물 커뮤니티 앱 가입해서 자랑 좀 하고 싶네."	"수십 년 된 빈티지 오디오, 고칠 수 있는 곳 없나요?"	[A의 니즈] (모바일 앱) ↔ [B의 재능] (IT 활용) [B의 니즈] (기기 수리) ↔ [A의 재능] (아날로그 기술)
[나눌게요]	"왕년에 '전파사' 운영. 웬만한 아날로그 기기 다 고침."	"어떤 앱이든 10분 안에 마스터하고 쉽게 설명해 줌."	AI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교환점을 포착!
[배울래요]	"키오스크 올링증.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주문 도전!"	"40년 경력의 '진짜' 된장찌개 비법이 궁금해요."	[A의 니즈] (키오스크) ↔ [B의 재능] (디지털 기기) [B의 니즈] (요리) ↔ [A의 재능] (전통 요리)
[나눌게요]	"눈대중으로 끓여도 맛집 되는 '종갓집 70년' 된장찌개."	"세상 모든 키오스크, 게임 퀘스트처럼 공략 가능."	AI가 '삶의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교환!

[서비스의 예상 UI/UX 이미지 시각화]

세대가 아닌 사람을 마주합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연결되는 곳 마주.ai



6. 기대효과

[마주.ai의 목표]

<서로의 지혜를 마주 보는 곳 : 마주.ai>는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운다'는 일방적 구조가 아닌, 각자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합니다.

[사회적 가치]

시니어의 생활 지식과 전문 경험은 사회에 다시 쓰일 기회를 얻고 청년이 가진 디지털 능력은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되어 자존감 향상 및 사회적 역할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청년과 시니어는 '배우고 싶은 것'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며 대등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대 간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행정·복지 중심 접근을 넘어

일상 교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세대 연결 모델로 확장됩니다.

[경제적 가치]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식·노하우 손실을 최소화하고, 은퇴 인력이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또한 청년이 가진 콘텐츠 제작 역량, 모바일 적응력, 최신 AI 툴 활용 능력 등이 단순 기술이 아닌 ‘교환 가능한 재능’으로 전환됩니다.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이 결합하면서 기존에 없던 융합 서비스와 새로운 시장(동네 기반 푸드 클래스, 로컬 브랜드 협업, 지자체·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주.ai는 경험 자산 재활용·재능의 경제화·세대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사회와 경제가 동시에 이익을 얻는 지속 가능한 구조의 서비스입니다.